

NEW HOPE CHURCH

우리가 섬기는 뉴호프 처치는 아직 예배당이 없는 교회이지만 점점 붐비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10여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지금 유년주일학교 30여명, 중고등 및 장년부 20여명으로 성장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주세요!

이곳을 섬긴지가 이제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너무도 황량하고 척박해 보였다. 가난과 무지, 그리고 가족의 단란함을 찾아 볼 수 없는 동네였다. 주일날 예배는 으레 간식을 얻어 먹기 위한 모임에 불과해 보였다.

주님! 이들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을 주세요. 언젠가부터 기도하게 된 기도제목이었다. 제발 이들이 간식보다 더 긴급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주세요.

<뉴호프교회 주일예배 모습.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PLAY

PAUSE

STOP

그러던 어느 날, 주일예배를 마칠 무렵, ‘스라이나잇’이라는 젊은 엄마가 갑자기 성경책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성경에 나오는 ‘쁘레야예수끄리’(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고도 신기하였다.

알고 보니, 이 젊은 엄마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갔다는 것이다. 두 아이들을 혼자 돌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는 글을 읽을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일에 감격하여 함께 기도하며, 장차 이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야자수 나무 아래는

이 사진은 캄보디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자수 나무 사진에 하와이 해변을 포토샵으로 합성시켜 본 것입니다. 눈을 하늘로 향하고 땅을 해변으로 상상하면 캄보디아에서 바로 이런 풍경이 합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캄보디아의 땅은 어디를 가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토질은 비옥하여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을 틔우는 풍요의 땅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비록 게을러 보이긴 하지만, 어디를 가도 친절하고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 밭에 복음의 씨가 뿌리내려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WHAT'S PASSING?

하기 전도집회_Mini Crusade

HMI의 정기 전도집회는 12월(올해부터는 11월)에 있지만, 8월 6-7일 양일 간에 3개 축구팀을 초청하여 모두 4팀이 조출하게 경기를 갖는 미니 축제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축구 경기를 구경하러 온 주민들에게 전도하여 가까운 교회로 연결시켜 주고, 또 경기 막간을 이용하여 찬양과 설교를 통해 결신자를 얻는 일을 하였다. 비록 정기 전도집회에 비해 숫자는 적었지만 올해도 젊은이들 가운데 기꺼이 결신하는 사람들이 나와 공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료 사역

그간 주민 진료를 양방 클리닉에서 하다가 환자수의 증가에 따라 두배 크기의 공간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제는 침상을 하나 더 추가하여 동시에 2명, 많게는 3명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임상 실습을 하는 신학생들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공간의 확보에 따라 용이하게 되었다. 항상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찬양을 드린다.

HMIC 소식

이곳 캄보디아 HMI는 지금 선교사 훈련센터인 학개관과 MK School 학생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다. 현재 MK 교사 숙소 건물이 80% 완공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하드웨어는 잘 마련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준비된 인력이다. 김해준 선교사님이 8월 중순부터 약 2주간 미주 지역과 한국에 MK School의 후원과 교사로 헌신할 자원을 모집하는 일을 위해 방문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 미주지역(영어권) 사역자들이 영어, 예체능, 컴퓨터 등의 교사로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우리가 섬기는 뉴호프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끔학 전도사와 단닌 사모가 계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도록.
2. 새벽 4시 30분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베델 신학교 아이들이 신실한 주의 종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가정 형편과 건강상의 문제로 종종 낙오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3. 한정된 공간과 짝 짜여진 일과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4. 의료 사역에서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복음의 회복이 병행되도록
5. 후방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중보기도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PHOTOS



스라이나잇과 김현숙 선교사의 모습

2



하기 전도집회에서의 전도



캄보디아는

아이들의 나라입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쉬워요. 주는 대로 받는 아이들
이어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둘 것 같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얼른 오세요!